

유도순의 시집 『혈흔(血痕)의 묵화(默華)』에 관한 연구

장 유 정*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혈흔의 묵화』 수록 시의 특성 |
| II. 유도순의 신상 관련 쟁점 | 1.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애상 |
| III. 『혈흔의 묵화』의 전반적인 양상 | 2. 기독교적 세계관의 표출 |
|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유도순의 시집 『혈흔의 묵화』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유도순의 초기 시 네 편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유도순의 신상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였다. 즉 기존의 유도순의 사망 연도로 지적된 1938년이나 1939년 내지 1940년 사망 추정설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더 많은 방증자료가 필요하나, 본고에서 언급한 ‘1945년 사망설’이 앞서 제시된 유도순의 사망 연도보다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서 유도순이 1920년에서 1921년에 걸쳐 『매일신보』에 수록한 네

* 단국대 교양기초교육원

편의 시를 소개하였다. ‘과잉된 감상주의’가 표출된 이러한 시들은 당시 시들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네 편의 시는 유도순의 초기 시 목록에 보충해야 할 것들이기도 하다. 이어서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시도 소개하였다. 1926년에 간행된 『혈혼의 묵화』는 유도순이 그때까지 창작한 시 중에서 23편을 선별한 시집이다. 비록 기존에 이미 알려진 시가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시집에 수록된 시를 소개하여 유도순 초기 시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애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표출’이 그것이다. 유도순의 시 창작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의 시를 통해 그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시 창작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밝혔다. 즉 비애와 슬픔 속에서 기독교에 의지했던 유도순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를 창작했던 것이다. 시집의 <서시>를 비롯하여 <나의 시>에 이르기까지의 시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애상’을 드러낸 시의 경우, ‘부재한 임’, ‘시적 화자의 과거 지향성’, 그리고 ‘시적 화자의 수동성’이 민요를 위시한 기존 시가의 전통을 계승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혈혼의 묵화』는 유도순 자신이 창작한 초기 시를 결산하는 의미를 지니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도순에게 있어서 어찌면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을 떠나보내는 일종의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플 만큼 아파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듯이, 『혈혼의 묵화』도 유도순 청춘의 한때를 결산하는 의미를 지니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시 한편마다의 치밀한 분석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유도순의 초기 시 네 편을 소개하고 『혈혼의 묵화』의 전모를 밝힌 것은 본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유도순, 작사가, 부재한 임, 애상, 기독교적 세계관, 혈혼의 묵화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유도순의 시집 『혈흔의 묵화』를 소개하고 시집에 수록된 시들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아울러 초기 시 중에 공개되지 않은 유도순의 시 몇 편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시인, 동시 작가, 대중가요 작사자, 신문사 기자 등으로 활약한 유도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현재까지 그의 시를 연구한 몇 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¹⁾ 그나마 최근에 유도순이 작사한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²⁾ 여전히 그의 신상과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유도순의 시집 『혈흔의 묵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그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다행히 보성고등학교 오영식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신 『혈흔의 묵화』를 이번에 선생님의 허락과 도움으로 소개하게 되었다.³⁾ 1926년에 간행된 『혈흔의 묵화』는 유도순의 초기 시들을 모아 놓은 것인지라 유도순의 초기 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집을 통해 그의 초기 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유도순의 신상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살펴

-
- 1) 유도순의 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성국, 「유도순 시 연구」, 『서강어문』 제7집, 서강어문학회, 1990.
박상무, 「유도순 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1998.
서범석, 「유도순 시의 리듬」, 『국제어문』 22집, 서경대학교 출판부, 2000.
 - 2) 유도순이 창작한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연구로는 이동순, 「유도순 가요시의 테마와 유형-1930년대 식민지 대중문화 아카이브의 새로운 정리-」,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와 장유정, 「유도순의 대중가요 가사 분석과 작품 규정 문제」, 『한국어문학연구』 6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3을 들 수 있다.
 - 3) 『혈흔의 묵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꺼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오영식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의 문인 중에는 여러 예명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직까지 누구의 예명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시인과 대중가요 작사자 활동을 병행한 유도순 또한 많은 예명 내지 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그의 아호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그의 생몰연대와 관련해서도 아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그에 대한 기록은 잘못된 것이 태반이다. 그의 고향이 ‘신의주’라는 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서 ‘영변’이라고 정리하였으나, 그의 출생 연도와 사망연도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의 출생 연도와 관련해서는 1902년과 1904년 중 1904년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의 자료에 의거하여, 1904년을 유도순의 출생 연도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그의 사망연도로 적시되어 있는 1938년도는 여러 정황 상 맞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⁴⁾

그러므로 본고의 II장에서는 주로 그의 사망연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어서 III장에서 『혈혼의 묵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소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시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혈혼의 묵화』가 지니는 의의 및 시집에 수록된 시들의 의미를 갈무리하기로 한다.

II. 유도순의 신상 관련 쟁점

평안북도 영변에서 출생한 유도순은 10대 후반 때부터 시작 활동을

4) 서범석은 유도순의 사망연도를 비롯한 상세한 전기적 사실의 탐사와 『혈혼의 묵화』 등 그에 관한 자료가 일반에 널리 유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범석, 앞의 글, 172쪽)

하였다. 니혼 대학에 다녔던⁵⁾ 그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매일신보』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했고, 1930년대 후반에는 『매일신보』 신의주 지사장을 역임했다. 1925년 『조선문단(朝鮮文壇)』 4호에 실린 <갈뉘 밋헤 숨은 노래>로 등단했다고 하나,⁶⁾ 『동아일보』 1923년 5월 27일에 이미 ‘동아일보 일천호 기념’ 현상 공모에서 당선된 시 <고독>이 수록되어 있다.

맛난이도 업시 해는저
그림자도 업는 黃昏에
일흠모를 色彩와 感激에
쓰는 情熱의 붓자취
보낼곳은 어대며
줄이는 누구인가

<고독(孤獨)>(賞乙)(「當選新詩」, 『동아일보』 1923년 5월 27일)

1920년대 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도한 감상성을 표출하고 있는 <고독>은 ‘동아일보 일천호 기념’ 현상에서 당선된 시이다. 동아일보사는 1923년에 『동아일보』가 1천호에 달한 것을 기념하여 논문, 단편소설, 1막 각본, 동화, 한시, 시조, 신시, 동요, 만화, 감상문, 지방전설, 향토자료, 우리 어머니, 가정개량에 이르는 분야에서 원고를 현상 모집하였다.⁷⁾ 여기서 유도순의 <봄>이라는 동시가 갑상으로 당선되었고,⁸⁾ <고독>이라는 신시(新詩)가 을상으로 당선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인 1920년부터 『매일신보』 독자 투고란에서 유도순의 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 1920년 9월 17일자에 <비오는 밤>이라는 시가 실려 있고, 이어서 1921년 『매일신보』에서도

5) 박상무는 유도순이 일본의 니혼 대학에 다닌 것은 분명하나 졸업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박상무, 앞의 글, 6쪽)

6) 이동순, 앞의 글, 2012, 360-361쪽.

7) 『동아일보』 1923년 5월 3일.

8) 『동아일보』 1923년 5월 25일.

<번민아>, <멀리 떠나간 님에게>, <죽었다지> 등의 시를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앞서 1920년 6월에는 『기독신보』에 <식벽기도회종소리>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1921년 6월 12일 『동아일보』 독자 투고란에 <기념의 황금답>이라는 시를 발표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유도순은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 1926년 5월 15일자에 ‘조선 문단의 명성’ 유도순과 김형배 양이 결혼한다는 기사가 그들의 사진과 함께 실린 것을 볼 때,⁹⁾ 유도순은 1926년에 이미 문단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렸다고 볼 수 있다. 유도순은 『조선문단』을 위시하여, 『신민』, 『문예시대』, 『신생』, 『혜성』, 『동광』, 『개척』, 『별건곤』 등에 시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1926년에는 자신의 시를 모아서 시집 『혈혼의 묵화』로 묶기도 했다. 아울러 유도순은 1934년부터 주로 콜럼비아 음반회사에서 작사를 하여 1942년까지 약 104편의 작품을 남겼다.¹⁰⁾

한편 유도순의 출신지가 ‘신의주’라는 설이 있었으나 “내 고향은 약산동대”라고 밝힌 그의 글 등을 통해 그가 ‘영변’ 출신임이 밝혀졌다.¹¹⁾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의 출생 연도를 1904년이라고 하였으나 1902년이라는 설도 있다.¹²⁾ 하지만 1932년에 나온 『문예가명록』에는 유도순의 출

9) 『동아일보』 1926년 5월 15일자에는 유도순과 신부 김형배의 사진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조선문단의 명성 류도순(劉道順)군과 강서군(江西郡) 김형배(金滢培)양과의 결혼식을 금월 십오일 오후 네시에 강서읍 레배당에서 안석준(安錫濬) 목사의 주례로 거행합니다”

한편 박상무는 “유도순의 모습은 사진이 유실되어 찾아볼 수 없다”(박상무, 앞의 글, 9쪽)고 했으나, 『동아일보』 1926년 5월 15일자에 유도순의 사진이 실려 있고, 『혈혼의 묵화』에도 동일한 사진이 실려 있어 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10) 유도순의 작사한 대중가요 가사의 대체적인 양상과 특징은 장유정, 앞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11) 유도순은 「진달래의 의미」(『신동아』 1904년 12월호)라는 글에서 “내 고향은 약산동대(藥山東臺)로 진달래꽃의 명승지(名勝地)입니다”라고 하였다 한다.(위의 글, 6쪽에서 재인용) 그리고 『삼천리』 1937년 1월호에서도 유도순이 자신의 고향을 ‘영변’이라 한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림 1> 유도순과 그의 결혼 관련 기사(『동아일보』 1926년 5월 15일)

생을 1904년 12월로 표기하고 있다.¹³⁾ 『문예가명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유도순이 활동했던 당시에 나온 자료인지라 후대에 나온 자료보다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유도순의 전기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의 사망연도이고,¹⁴⁾ 다른 하나는 그의 호(號) 내지는 예명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그의 사망연도의 경우, 대부분 그의 사망연도를 1938년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가 1939년 내지 1940년경에 사망했다고 추정한 설이 있다. 유도순의 생애를 언급한 인터넷 게시 글에는 대체로 그의 사망연도를 1938년이라 적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유도순의 시를 고찰한 조성국은 유도순이 1939년 내지는 1940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¹⁵⁾ 박상무도 유도순이 1939년

12) 이준희·이영미, 『사의 찬미』, 범우, 2006, 309쪽에서는 유도순의 출생 연도에 1902년과 1904년을 모두 적고 있다.

13) 「문예가명록」, 『문예월간』 1932년 1월호. 그리고 「문예가명록」에서는 그의 호가 ‘유초(幼初)’라는 것과 그가 1904년 12월 영변에서 출생했다는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14) 유도순의 사망연도에 대해서는 장유정, 앞의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15) 조성국, 앞의 글, 253쪽.

내지 1940년에 숙환인 위 질환으로 사망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¹⁶⁾

일단 유도순이 1938년이나 1939년에 사망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1939년에 나온 『매일신보』에서 여러 차례 유도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39년 이후에 ‘유도순’을 언급한 『매일신보』의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일신보』 1939년 3월 3일 - 人事: 劉道順氏(本社新義州支社長) 病으로 滯城入院治療中이든바 退院 二日午後三時京城驛發歸新

『매일신보』 1939년 5월 21일 - 人事: 劉道順氏(本社新義州支社長) 二十日貫鐵町 金東益內科醫院에 入院

『매일신보』 1939년 6월 1일 - 人事: 劉道順氏(本社新義州支社長) 身病으로 京城明治町聖母病院에 入院中

1939년 당시, 『매일신보』 신의주 지사장으로 있던 유도순이 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매일신보』 1939년 11월 4일에 다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일신보』 1939년 11월 4일자에서는 신의주 ‘신성운동구상회(信成運動具商會)’ 주최와 『매일신보』 신의주 지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제1회 ‘선만축구대회(鮮滿蹴球大會)’를 소개하였는데, 역원의 이름 중 대회장 김의명(金義明)에 이어 부회장에 ‘유도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기사만 보더라도 유도순이 1938년에 사망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더 확실한 증거는 유도순이 1942년까지 대중가요를 작사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확인되는 것으로는 1942년 8월에 발매된 <통군정 노래>와 <뗏목 이천리>가 유도순이 작사한 마지막 대중가요가 아닌가 한다. 게다가 이 작품들은 유도순이 직접 해당 지역을 답사하고 작사한 것이라 유도순이 1942년 당시에 생존했던 것이 확실하다.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유도순이 작사한 대중가요가 20편을 넘는 것을 볼 때, 이 많은 작

16) 박상무, 앞의 글, 8쪽.

품들을 유도순의 유고 작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유도순은 언제 사망하였을까?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유도순의 사망연도를 표기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동아일보』 1964년 4월 20일자에 유도순의 사망연도가 1945년이라 적혀 있었던 것이다. 즉 유도순이 『매일신보』 평북지사장(平北支社長)으로 있다가 후에 소련군에게 학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1960년대에 나온 이 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그의 사망 경위를 밝힌 것으로 보아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한국 신문 백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신문과 관련된 인물들의 약력과 생몰 연대를 적시한 것이므로, 『매일신보』 신의주 지사장을 역임한 유도순에 대한 이 기록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게다가 유도순이 1942년까지 생존했고, 광복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별다른 기사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가 1943년에서 1945년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신문인들의 생몰 연대를 적시한 기사에서 언급한 ‘1945년 사망설’이 기존 연구자들이 유도순이 1938년에 사망했다고 말한 것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유도순이 시를 창작할 때 사용했던 아호로는 유초(幼初)¹⁷⁾, 월양(月洋), 월야(月夜), 홍초(紅初) 등을 들 수 있다. 『삼천리』 1937년 1월 호에서 유도순은 자신의 호로 월양(月洋)과 홍초(紅初)를 들고 있다. 유도순은 ‘월양이 자신이 달밤을 상상하고 지은 것이고, ‘홍초’는 소설가 최서해가 지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유도순은 『동아일보』 1921년 6월 21일자에 <기념의 황금탑>을 수록할 때는 ‘월야라는 호를, 『동아일보』 1923년 5월 25일자에 <봄>이란 동요를 실을 때는 ‘월양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박상무가 지적했듯이, ‘유초’라는 호를 사용하여 발표한 유도순

17) 오영식, 『불암통신』 제12신, 보고사, 2005, 213쪽. 오영식 선생님은 유도순의 호 ‘유초’의 근거가 『출판대감』(조선출판문화협회 편·발행, 1949년 4월 15일, 92쪽)의 ‘아호 별호 급 필명 예명 일람표’라 하였고, 「문예가명록」, 『문예월간』 1932년 1월호에도 ‘유초’라는 호가 적시되어 있었다.

의 시를 찾을 수 없다. ‘유초’의 근거는 1932년에 나온 「문예가명록」과 1949년에 나온 『출판대감』의 ‘아호 별호 급 필명 예명 일람표’인데, 실제 이 호를 사용해서 발표한 시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어찌면 ‘유초’가 유도순이 자신의 호라고 직접 밝힌 ‘홍초’의 오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⁸⁾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해 선부르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유초’가, 유도순이 사용했던 호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일단 본고에서는 아직 시에서 ‘유초’라는 호나 예명을 사용한 작품의 예를 찾지 못했다는 것 정도만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Ⅲ. 『혈혼의 묵화』¹⁹⁾의 전반적인 양상

앞 장에서는 유도순의 사망연도를 검토하고 그가 시를 창작할 때 사용한 아호를 정리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 온전하게 알려지지 않은 유도순의 시집 『혈혼의 묵화』를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혈혼의 묵화』와 관련된 기사 중 『동아일보』 1968년 5월 18일자에 『혈혼의 묵화』가 『혈혼의 묵취』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유통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1961년 1월 영창서관에서 ‘춘성(春城)’ 작(作)으로 발행된 반국판의 『혈혼의 묵취(默萃)』란 시집이 원래는 1926년 3월 청조사에서 발행된 유도순의 시집이라며 이를 ‘표절’이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춘성 노자영도 1940년경에 사망하였으므로 『동아일보』에서 언급한 『혈혼의 묵

18) 유도순이 ‘홍초’라는 예명을 사용해서 대중가요를 작사한 흔적은 찾을 수 있다. <숨어서 우는 울음>(유도순 작사, 고태정남 작곡, 최영희 노래, 콜럼비아 40636, 1935)에서 ‘유도순’과 ‘홍초’라는 이름이 모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장유정, 앞의 글, 250쪽)

19) 서범석은 『혈혼의 묵화』 중 ‘묵화(默華)’의 한자 표기를 ‘묵화(墨畵)’라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서범석, 앞의 글, 149쪽)

취』는 해적판이라 할 수 있다.

유도순의 시집 『혈흔의 묵화』는 대정 15년인 1926년에 청조사(靑鳥社)에서 발간되었으며, 당시의 정가는 30전이였다. 정확하게 1926년 2월 28일에 인쇄하여 1926년 3월 2일에 발행된 걸로 적혀 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의 저작(著作) 겸(兼) 발행자(發行者)에 노자영(盧子泳)이라 적혀 있었다. 이는 당시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았던 배경과 연관이 있다. 저작권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대 초기에는 저자가 출판사에 글을 보내면 출판사가 저작권까지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청조사의 사장인 노자영이 유도순 대신 저작자 이름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1961년 해적판 시집 『혈흔의 묵취』의 저작자가 ‘춘성’으로 적혀 있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즉 『혈흔의 묵취』는 『혈흔의 묵화』의 오기이고,²⁰⁾ 원 시집의 저작 겸 발행자 이름에 노자영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 시집이 유도순이 아닌 춘성 노자영의 시집으로 잠시 유통되었던 것이다.

유도순의 시집 『혈흔의 묵화』는 가로 10.5cm와 세로 14cm의 크기로 되어 있고, <서(序)>를 포함하여 총 23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그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마음을
한빛 아래서
봄밤
엇던날 밤
뷔인 집
넷날의 한 썩
무학산의 밤
애원

20) 『동아일보』 1968년 5월 18일자에서 『혈흔의 묵취』라고 표기한 것은 기사를 쓴 기자의 실수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사와 함께 수록된 이미지에는 시집 제목이 『혈흔의 묵화』라고 정확하게 적혀있기 때문이다.

달빛
봄과 마음
님이여
산속에서
제수(祭水)
고역
계집의 마음
밋음
지은 뜻
맹세
나는 별과 말합니다
표현
나의 시
귀다림



<그림 2>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유도순의 사진

목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시가 이미 『조선문단』에 소개된

것들이다. <나의 마음을>, <어떤 날 밤>, <옛날의 한 때>, <달빛>, <기다림>, <한빛 아래서>, <임이여>, <계집>, <제수>, <애원>, <기억> 등이 모두 그러하다. 결국 『혈흔의 묵화』는 유도순이 1926년 이전에 발표한 시들을 선별해서 간행한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성국과 박상무가 기존에 <무학산의 봄>이라 적시한 시²¹⁾가 『혈흔의 묵화』에 실린 <무학산의 밤>과 같은 시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문단』 1925년 6월호에 수록된 시를 확인한 결과, 기존 연구자가 <무학산의 밤>을 <무학산의 봄>이라 잘못 표기한 것을 알았다. 『조선문단』에는 <무학산의 밤>이라 적시된 것을 연구자가 <무학산의 봄>이라 잘못 표기했고,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그 다음 연구자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면서 <무학산의 밤>이 <무학산의 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글자나 행 처리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데, 『혈흔의 묵화』에 수록된 시와 『조선문단』에 수록된 시를 원문 그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드러운 어두움에
 불사록 아득한 숲풀은
 우해서 푸른 별빛이 홀노 직합니다

산기슬오막사리에서 불빛이 흐르기에
 노래나 이슬까하야 귀를기우려도
 코구는 소래에 목숨만 죽어갑니다

어리석게 살어진 가이업는꿈이건만
 가슴에 영킨피는 이곳에와서도
 그대를 아직도 못잊고 늦겨웁니다
 (이詩를敬愛하는昇洛兄님에게들입니다) 一窺二五, 四月五日
 <無鶴山의 밤>(『조선문단』, 1925년)

21) 조성국, 앞의 글, 286쪽; 박상무, 앞의 글, 13쪽.

부드러운 어두움에
불사륙 아득한 숲꼴은
우해서 푸른별빛이
호을노 직합니다

산기슭 오막사리에서
불빛이 흐르기에
노래가 이슬까하야 귀를기우려도
코구는 소래에 목숨만 죽어집니다(원문에는 ‘다’ 누락됨)

어리석게 살어진
가이업는 썸이건만
가슴에 영킨피는 이곳에 와서도
그대를 못났고 늦겨웁니다
<無鶴山의 밤>(『혈혼의 묵화』, 1926년)(밑줄은 인용자)

『조선문단』과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무학산의 밤>을 비교할 때, 『조선문단』에 실은 시를 『혈혼의 묵화』에 다시 수록하면서 시의 행 처리를 더욱 간결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홀로’를 ‘호을로’라 표기하여 시적 허용을 사용했고, ‘죽어갑니다’ 대신에 괴동의 의미가 들어간 ‘죽어집니다’를 사용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직도’와 같은 군더더기 표현을 제거한 것을 알 수 있다.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시는 유도순이 창작한 대부분의 초기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그 임이 때로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의 시가 기독교적 배경에서 출발했으므로 초기 시에 기독교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연의 아픔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을 표현한 것도 그가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진 경험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²²⁾

22) 유도순은 운명적인 임을 만나 3년 간 사랑을 속삭이다가 1923년에 돈 때문에 첫

아래의 시는 『혈흔의 묵화』 첫 장에 소개된 <서(序)>의 전문이다.

나는 한 기다림을 가지고
피로운 제 길을 혼자 가며
제 마음에 누우침 업시
석양 햇빛 갖히 피를 흘녔다
흔이 고향을 찾는 길에서
이 피의 방울은 방울은
청춘 우혜 무지개 갇히
노래로 씻을 피웠다

마치 ‘구도자의 길’을 연상케 하는 <서시>에서 그가 이 시집 전편(全篇)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외로움과 고독을 자처하는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기다림을 잃지 않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입에 대한 마음을 지키며 그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겠다는 그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 시집 속에 수록된 시들에서는 당시 여타 시에서 볼 수 있는 ‘비애의 서정’이 표출된다. 그러면서도 이성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거나 희망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도 몇 편 수록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혈흔의 묵화』에 수록된 유도순 초기 시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IV. 『혈흔의 묵화』 수록 시의 특성

『혈흔의 묵화』에 수록된 유도순의 시를 살펴보기에 앞서 『매일신보』에 수록한 유도순의 시를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매일신보』에 소개된

사랑과 헤어지고 사랑하던 그 입을 무덤에 묻게 되었다고 한다.(박상무, 위의 글, 33쪽)

유도순의 시는 1920년에서 1921년까지 약 네 편을 찾을 수 있었다. 『매일신보』에 게재된 유도순의 초기 시로는 <비오는 밤>, <번민아>, <멀리 떠나간 임에게>, <죽었다지>를 들 수 있다.

우습떠운 女王의 달님도!
고요흔 싸우에 빗뚝튼 별에 群衆도!
날흐리움에 가리우고
먹장갓치 싯캄안 帳幕만 들너있다
피와들에!
푸른 입헤 나리는 비
수풀에 부는 바람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모다 自然을 讚美호는 音樂이로다
燈불에 흰빛으로 쏘인곳에
영기여 춤추는 밤 버러지
아 네 世界로다 네 世界로다
사람은 다 깃흔 잠에 쏘뵈는 썩에
오 홀노 썩여있다
어린 서싱아가
눈에 무거운 조름을 비비며
弱흔 머리가 氣盡호도록
어제를 回想호고 너일을 生覺한다
바람이 무엇이며
즐거움에 달음을 맛보느냐?
안이 至今은 마암에 쓴짓뿐이나
將來가 달고단너 希望의 歡樂園이로다
一九二〇 九 一 방에, <비 오는 밤>(『매일신보』1920년 9월 17일)

『매일신보』 1920년 9월 17일에 수록된 <비 오는 밤>은 비 오기 직전의 풍경을 세심하게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다. 비오기 직전에 날이 흐려지고 산과 들이 새까만 포장을 둘러친 것처럼 어두워지다 이윽고 비

가 내리는 모습을 동시처럼 순수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 전반부가 비 오기 직전과 비오는 풍경을 묘사한 것이라면, 시 후반부에는 홀로 깨어 있는 ‘어린 아기’를 묘사하고 있다. “약한 머리가 기진할” 정도로 상념에 잠긴 아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장래가 달고 단 내 희망의 환락원(歡樂園)이로다”라고 해서 희망적인 언술로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비 오는 밤>이 희망적으로 끝을 맺은 것과 달리, 다음의 <번민이>는 시종일관 ‘번민에 쌓인 시적 화자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아아설어위라설우어라
가슴이터지는듯설우어라
사랑업는빛식지져무로
黃昏의世界찬房안에
悽然히안진煩悶兒이여!
이리도설어옴은可憎可惡한煩悶의문이여라煩悶은어린羊갓치순흔마음을
熱泉(끓는심)갓치뒤살마라

이 마음의애타는煩悶을
疑心업는맛김으로
후회업시들곳이어대이며
부드러운寧撫의恩惠로
情답게쌀줄이가그누구이라
마음에알마즌
多福흔世上이언제나날차즈려나

닭우는寂寥한시벽에
거룩한聖殿에서
自服하는信男信女와갓치
三代獨子를죽인絶문寡婦의
訴怨哀泣하는것처럼
나는그양孤獨의煩惱에업디여
설게설게참우노라

『하늘이준너運命의길을가르쳐달나고닐너달나고』

茫茫하고暗黑한만경창파에
 치업시즌一葉片舟에탄
 나의靈을동실동실써나가거라
 절대혼自由가흐르는
 나의온갖解決이거기잇는
 憧憬의나라를차즈려고
 아설어라압호어라煩憫의마음이여
 一九二一五黃昏에, <煩憫兒>(『매일신보』 1921년 1월 31일)

위의 시 <번민아>는 번민에 빠진 시적 화자의 언술로 이루어진 시이다. 과잉적인 감상성이 드러나는 이 시에서 ‘번민’의 근원을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다. 다만 시적 화자는 오뇌에 쌓여 서러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뿐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번민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경의 나라를 찾으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자유가 흐르는 동경의 나라’는 바로 “하늘이 준 내 운명의 길”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종교적인 소명을 찾아가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번민아>는 고뇌에 빠진 시적 화자가 종교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燦爛흐빛고운丹楓은
 다시업는어제로가고
 밋고치운北風寒雪
 아 白玉의世界일우어노아라
 만났슬적은눈흙 離別업시
 만나셔는보고심흔애달흔 ○
 님도나도同様の共通이여라

마음업던눈흙에
 가슴은아픔으로흘너들고

흐염업는 눈물은 압흘 흐리우어라
잇던 前日의 웃는 얼굴은
달음업는 薔薇花微笑를 담아 띄우고
나의 눈瞳子에 그리여 식기어 서기여 짐이 限업셔라
憧憬의 님의 얼굴이

어제도 오날도 여기에서 彷徨홀적에
부던 갓리 불록흔 님의 손이 그린 ○잇는 글월을
喜悅에 動惇흔는 가슴으로
꼭 썬안을 격에
난 흠에 압흠은 사르룩 힘업시 사라지고
깃봄의 우름에 限업시 늦기여라
그러나 前에 잇든 난 흠에 읍흠은 倏忽의 으로 나를 도로 차저 오너라

나는 이것뿐이여라 더 업셔라
넘잇는 푸른 山말근물을
멀니 멀니 날 바라보고
아픈 우름에 겨운 가슴을 헤쳐 노아
슬어 오르는 사랑의 哀願의 聲을
저 말근흔 날을 썬서 건네는
기력이 浬에 보늬이여서
子子흔 이 몸을
永遠無窮히 님지 안케 흠람이여라
<멀니 썬나간 님의 게> (『매일신보』 1921년 2월 4일)(○은 판독 불가)

죽엇다 지 죽엇다 지
너스 량 英姬가 고만 죽어 버렸다 지
悲劇에 暗黑흔 이 누리를 썬나
죽음의 우에 永遠흔 길손 『旅人』 님 되엇다 지 英姬야? 英姬야?
너는 只今어나 이 림모를 玲瓏흔 곳에서 平和흔 잠에 흔가로 히쉬고 잇서
엇저라고 沈默의 그 우흔 골작이 속에 汲히 汲히 汲히 잠겨서
悲哀의 압흠만은
이달히 던져 주면서 도

왜? 날차는 보드라운 부름은 업서
 슬픔을 그린 너흰니마에
 情絲는 微笑의 키스를 왜두지안이히
 덩녕 보고심혼 憧憬의
 맘흔조각이 淺薄흔게지
 흐루세번 밥먹을씩애
 네가꿈게 암전흔게 쇼구리고 안져서 기웃기웃히죽히죽흔며
 술젓흔든그자리는
 보기실케無心스러히도空間지여이셔라
 그러나그러느니사랑너는
 눈에암암
 귀에징징
 너잇숨은確的인듯確的이야
 아 異常흔고神異도히라
 잇다면셔도
 네자스한體溫이
 너神經에感覺되지안이히
 아랏서 아랏서 나는참아랏서
 世上帳簿에 네일흠 석자 사라지고
 大國記錄에 널 쓰게흔
 永遠不歸의 旅行을 썬나게 흔
 큰神秘의 絶大의 부름인줄 나는아랏서라
 ○도 흔번 이부름에
 世上을 썬나 靑山一遇무덤속에
 困憊흔 너몸둥이를
 葬死홀썬
 너는 널차자 더운 기쓰로 썬안으리라
 一九二一 一,三 아참에<죽엇다지>(『매일신보』 1921년 2월 10일)(○
 은 글자 누락)

<멀리 떠나간 입에게>와 <죽엇다지>는 모든 떠난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들이다. 입이 떠나간 상황에서 떠난 입을 그리워하

고 이를 슬퍼하는 화자의 비참한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죽었다지>는 사랑하는 임이 죽어서 재회의 가능성이 애초부터 차단되었기에 그 그리움이 더욱 절절하게 드러난다. 화자는 임이 마치 자신의 곁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리움의 병이 깊게 들었다. 그러므로 시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환상과 착각, 그리고 환영은 시적 화자의 비애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유도순의 초기 시에서 드러나는 과잉된 감상주의는 1920년대 등장한 시들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 10대 후반 소년의 풍부한 감수성과 정신적 방황, 그리고 순수한 열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유도순의 시집 『혈흔의 묵화』에 수록된 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애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표출’이 그것이다. 두 가지 모두 ‘잉여’나 ‘충만’보다는 ‘결핍’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충만한 상태에서 애상적인 정서가 유발되기는 어렵기도 하다.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를 때, 그래서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애상적이거나 감상적인 정서도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혈흔의 묵화』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두 편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거나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슬비 고요히 노래를 부르니
 두던에는 봄이 옵니다
 내 가슴도 그 봄을 마져서
 마음에서는 삶의 기운이 움지겠스나
 푸른 싹을 금잔디에만 뚫습니다

바람이 수풀을 어러만지니
 나무에는 봄이 옵니다
 내 가슴노(‘도’의 오자) 그 봄을 마져서
 마음에서는 향기가 니러났스나

꽃은 가지에만 핍니다

아즈랭이 먼 산 꽃해 추파를 거니
한울에는 봄이 옵니다
내 가슴도 그 봄을 마져서
마음에서는 무슨 소래가 나스나
노래는 종달새만 부릅니다

햇빛이 더움으로 쌍을 덥흐니
들에는 봄이옵니다
내 가슴도 그 봄을 마져서
마음에서는 언장을 베리엿스나
밝은 농부와 소만히 감니다
<봄과 마음>

<봄과 마음>이란 제목의 이 시는 봄을 맞아 밝고 희망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이다. 봄을 맞아 삶의 기운이 움직이고 마음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자연물을 들어 밝게 그리고 있다. 동시를 연상케 하는 이 시에서는 두더, 금잔디, 바람, 수풀, 나무, 햇빛, 산, 종달새, 땅, 들, 밭과 같은 자연물이 대거 등장하여 봄의 밝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가 ‘부재(不在)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시를 중심으로 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애상

앞서 언급했듯이,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시에는 ‘부재(不在)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그린 시가 많다. 다음의 <취인 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이여-
산기슬게 매인 소가
엄마 엄마 누구를 부릅니다
나는 그대도 업는 집을
멀-니 바라보며
비어는 꼴을 질머집니다

남이여-
금빛 놀의 남은 빗은
한줄기의 우습을 마자 거둡니다
나는 그대도 업는 집을
멀-니 바라보며
정 있는 듯이 흐르는 냇물 싸를 밟습니다

남이여-
저녁달은 아모도 모르게
웃득한 동산 우혜 듯습니다
나는 그대도 업는 집을
멀-니 바라보며
기다림을 가지고 혼자 외로워합니다(<뷔인 집>)

<뷔인 집>이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적 화자는 입이 떠나고 비어 있는 집을 바라보며 입을 그리워하고 혼자 외로워한다. 시적 화자는 지금 홀로 있기 때문에 입은 ‘부재(不在)한 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적 화자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에 매달려 있다. 여기서 시적 화자의 ‘과거지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떠난 입의 집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림을 가지고 혼자 외로워할 뿐’이다. 그러므로 시적 화자는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재한 입’, ‘시적 화자의 과거지향성’, 그리고 ‘시적 화자의 수동성’은 민요를 위시한 전통적인 시가 양식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²³⁾

<뵤인 집>도 전통 시가에 나타나는 이러한 ‘임에 대한 정서’를 계승해서 보여준다. 다만 민요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임이 미래에는 자신의 곁에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²⁴⁾과 달리, <뵤인 집> 마지막 연의 “기다림을 가지고 혼자 외로워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에서 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임이 돌아온다는 기약을 찾을 수 없기에 이 시에서 드러나는 비애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시 중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애상’을 표출한 시로는 <엇던날 밤>, <넛날의 한 썰>, <무학산의 밤>, <달빛>, <제수>, <계집>, <기다림>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자연물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표출하고 있다.

2. 기독교적 세계관의 표출

『혈혼의 묵화』에 수록된 유도순의 시 중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표출한 시도 있다. 시집 앞부분에 주로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애상’을 표출한 시를 배치했다면, 뒷부분에는 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드러낸 시가 안배되어 있다. 이러한 시로는 <밋음>, <지은 뜻>, <맹서>, <나는 별과 말합니다>, <표현>, <나의 시>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임’ 내지 ‘당신’은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임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잊지 않는 곳이 업서요
당신은 정말
잊지 않는 곳이 업서요

23) 김대행은 민요에 나타나는 임이 ‘부재(不在)에서 생기는 정서’를 주로 하고 있다면서, 임의 의미로서 ‘부재성(不在性)’, ‘과거지향성’, 그리고 ‘수동성(受動性)’을 지적하였다.(김대행, 『한국시의 전통 연구』, 개문사, 1980, 159-164쪽)

24) 위의 책, 162쪽.

생명의 불은 어대든지 잇는 法이지요
니로나니 당신은
표현이라는 진리야요

고기가 되어 물속에도 잇고
새가 되어 산에도 잇고
그리고 축축히 나리는 비
바람 부는 그 속에도

우습 웃고 눈물 흘니는 거기에도
「無」와 「虛」의 죽음의 까지에도
이 넓은 누리 가지가지 무엇에든지
표현이라고 날갯은
당신은 업는법이 업서요<표현(表現)>

<표현>이란 시에서 당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의 불’인 ‘당신’은 ‘고기’가 되고 ‘새’가 되기도 한다. “표현이라는 진리”인 당신은 “없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믿음>이라는 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에겐 저만 아는 믿음이 결갯히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나의 시>에서는 이러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시를 ‘검님의 시’와 동격으로 놓는 데에까지 이른다.

나는 무지개 갯치
어엽분빛의 나라이 한껏그립어서
파무더오든 가슴의 하소는
밋을곳업는 고아갯치
하룻날 큰목소래를 빌어
설게도 설게도 울었습시다

안개 김흔 내 령감(靈感)의 골자기에는

새아닌빛이 밝음을 뿌렸습니다
그것은 검(神)님께서서
『눈물의 값으로』 주시는
진주갓흔 절가의 시가
처음 깃드림이 엮습니다

경매에 내걸면
모르는 여러분은
한푼에도 안살 나의시는
함부로 짓발코
헛덕 비웃지못할
거름하고 낚흔
검님의 시입니다(<나의 詩>)

<나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가슴에 쌓였던 남모를 슬픔과 비애, 그리고 하소를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풀었고, 서럽게 울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적 화자는 ‘안개 낀 영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를 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의 시는 ‘눈물의 값’으로 받은 시라는 것이다. 비록 자신의 시가 경매에서는 한 푼에도 안 팔리겠지만 “함부로 짓밟고 비웃지 못할” ‘검님의 시’라고 해서 자신의 시를 절대자의 시와 동격으로 놓고 있다. 이는 결국 유도순 자신이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자신의 시에 대한 자부심마저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유도순의 사망연도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유도순의 시집인 『혈혼의 묵화』를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유

도순의 초기 시 네 편도 함께 소개하였다. 유도순의 사망연도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1938년 사망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나 적어도 유도순이 1942년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945년 이후에 별다른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1943년과 1945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문인의 생몰연대를 밝힌 기존의 기사에서 유도순의 사망 연도를 1945년이라 적시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혈흔의 묵화』를 공개하고 전반적인 양상과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총 23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 『혈흔의 묵화』는 대체로 ‘부재한 입에서 비롯한 애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표출’한 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부재한 입에서 비롯한 애상’을 드러낸 시의 경우, ‘부재한 입’, ‘시적 화자의 과거 지향성’, 그리고 ‘시적 화자의 수동성’이 민요를 위시한 기존 시가에서 볼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도순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표출’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자신이 시를 쓸 수밖에 없던 정황을 일종의 ‘소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를 ‘검님(신)의 시’와 동격으로 놓아 자신의 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유도순의 초기 시 네 편을 함께 소개하였다.

『혈흔의 묵화』는 유도순 자신이 창작한 초기 시를 결산하는 의미를 지니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을 떠나보내는 일종의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플 만큼 아파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듯이, 『혈흔의 묵화』로 이제까지의 사랑을 정리하고 유도순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밝고 희망적인 내용의 시보다 비애로 가득찬 시가 많았던 것은 당시의 시 경향이 그러하기도 하거니와 유도순 자신이 첫사랑과 결별했던 개인적인 경험과도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정치한 분석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유도순의 초기 시 네 편을 소개하고 『혈혼의 묵화』의 전모를 밝힌 것은 본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고가 유도순의 시 전반을 연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유도순의 시와 대중가요 가사를 비교 고찰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 논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 『동아일보』, 『삼천리』, 『조선문단』
「문예가명록」, 『문예월간』 1932년 1월호.
- 박상무, 「유도순 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논문, 1998, 1-115쪽.
- 서범석, 「유도순 시의 리듬」, 『국제어문』22집, 서경대학교 출판부, 2000, 149-174쪽.
- 오영식, 『불암통신』제12신, 보고사, 2005, 1-242쪽.
- 유도순, 「진달래의 의미」, 『신동아』 1904년 12월호.
- 유도순, 『혈흔의 묵화』, 청조사, 1926, 1-44쪽.
- 이동순, 「유도순 가요시의 테마와 유형-1930년대 식민지 대중문화 아카 이브의 새로운 정리-」, 『민족문화논총』제52집, 영남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소, 2012, 359-421쪽.
- 장유정, 「유도순의 대중가요 가사 분석과 작품 규정 문제」, 『한국어문학 연구』6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3, 243-271쪽.
- 이준희·이영미, 『사의 찬미』, 범우, 2006, 1-332쪽.
- 조성국, 「유도순 시 연구」, 『서강어문』 제7집, 서강어문학회, 1990, 251-289쪽.

<Abstract>

A Study on Yu, Dosoon's Collection of Poems, "The Bloodstain of Silent Flowers"

Zhang, Eu-Jeong*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Yu, Dosoon's collection of poems, *The bloodstain of silent flowers* which is unpublished till now. As well as four closed poem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First, this paper is examined the year of his death. Judging from the data, he may have died in 1945. His early poetry reveals excessive sentimentalism, it will follow the overall trend of the time.

On the other hand, his collection of poems are contained 23 poems. Although more than half poems are known already, these poems are important because his poems are shown the his early poems trend. His poems are divided into two. One is the sorrow of lover's absence and the other is the expression of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His collection of poems has meaning the organizing of his early poems.

Key Words : Yu, Dosoon, lyricist, a farewell of lover, sorrow,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The Bloodstain of Silent Flowers*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 확정 : 2013년 4월 4일

* Dankook University